

# 광주, 코로나19 감염 30대 이하 젊은층 60% 넘어

### 일주일 째 1만명대...광주·전남 학교·요양병원 중심 확산

### 고흥, 공장 집단 감염...목포소재 대학 기숙사 무더기 발생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학교와 요양 병원 등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광주에선 올 들어 30대 이하 신규 감염이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의 감염세가 확산 하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 주 6474명, 전남 5738명 등 1만2212명이 신규 확 진돼 일주일 째 1만명대를 이어갔다.

광주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구 한 요양병원 에서 24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98명으로 늘 었다.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 역시 12명이 추가 확 진돼 지금까지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선 특히 올 들어 이날까지 총 11만 4371명 이 신규 확진됐으며, 이 중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 은 30대 이하 젊은 확진자는 62.2%인 7만1134명 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하루 동안 22개 모든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순천 이 9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포(896명), 여 수(829명), 나주(418명), 광양(411명), 화순

(314명) 등이었다. 특히 목포 한 대학교 기숙사에 선 3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고흥의 한 공장에서도 49명이 집단 감염됐고, 여 수의 초·중학교와 무안 초등학교 등에서도 확진자 가 잇따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지난주 (2월 27~3월 5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5단 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발표했다.

방대본은 1월 셋째 주(1월16~1월22)부터 직전 주(2월20~26)까지 6주째 코로나19 위험도를 전 국 단위에서 '높음'으로 진단했으나 지난 주에는 위 험도를 한 단계 높게 평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위험도 역시 같은 기간 '높음'에서 지난 주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1단계씩 올랐다.

방대본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 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8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코로나 장기화에도 관광업체 증가

2021년 말 기준 852개 사업체...전년 대비 23개 늘어  
관광업계 선제적 지원 효과·일상 회복 기대감 등 반영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지난해 광주지역 관광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집계한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 관광사업체는 852개로, 2020년(829개)보다 23개(2.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감소한 상 황에서 광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는 관광사업체 증가 요인으로 지난해 추진한 선제적 관광업체 지원정책과 일상 회복 분위기 확산에 따른 역할했던 여행 수요 증가 기대감 등을 꼽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여행업체 생활 안정자금(1개 업체당 최대 250만원) 하고, 중소여행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 최초 공유사무실 지원(현 18개 업체 입주), 관광업계 뉴노멀 힐링 투어상품 개발 지원(145개 업체 선정, 1007명 투어 참여), 관광업계 종사자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160여 명) 등 을 진행했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 관광사업체 수 증가는 광주의 관광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올해는 관광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과 관광가이드 매칭 지원 사업,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속 지원 등을 통해 관광사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3차 접종자 중 60세 미만, 오미크론 사망 '0명'...계절독감 수준

중수본, 백신 미접종자 치명률 독감의 6배...접종 권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3차 접종을 한 뒤 오미크 론에 확진된 60세 미만 환자 중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연령대 오미크론 변이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6 배에 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3차 접종 완료자의 오 미크론 치명률이 0.07%로 계절독감(0.05~0.1%) 수준이며, 이 중 60세 미만만 보면 치명률이 0%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 도 3차 접종까지 미접종 경우에는 치명률이 0.52% 로, 60세 이상 미접종자 치명률인 5.53%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전체 미접종자 치명률은 0.6%로 계절독감보다는 약 6배 높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접종완료자는 계절독감 치명률과 유사하지만, 미접종자는 계절독감의 6배 수준, 특히 60세 이 상에서는 미접종자 치명률이 3차 접종 완료자보다 10배 상승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유사 한 수준인 것은 3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야기"라 며 "미접종자는 아무리 오미크론이라고 하더라도 계절독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치명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받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0.1%였던 코로 나19 주간 치명률은 지난달 셋째 주에 0.09% 수준 으로까지 낮아졌다. 방역 당국은 이런 치명률도 오 미크론의 실제 치명률보다는 고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이 아닌 기존 기저질환 등이 주 요 사망요인인 경우에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 되면서 치명률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됐을 수 있다 는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총사망자 수는 9096명 으로 누적 치명률은 0.19%다. 계절독감의 치명률

은 대략 0.05~0.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오미크론보다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당시의 사망자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오미 크론 변이가 우세화한 이후의 최근 주간 치명률 은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당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만큼 이 제 미접종자가 스스로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며 예방접종을 재차 권고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 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5%(누적 4439만 4243명)이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2.0%(누 적 3180만2879명)가 마쳤다.

/연합뉴스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 99.96%...스텔스 오미크론도 증가세

국내감염 사례에서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지 난 5일 0시 기준 99.96%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이 국내감염 사례 5629건을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 인 5627건이 오미크론 변이였고, 2건만 델타 변이 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사례의 99.2%(390건 중 387건)도 오 미크론 변이였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 계 통 'BA.2'의 검출률도 점차 늘어 국내감염 사례에 서 22.9%, 해외유입 사례 중에서는 47.3%로 나타 났다.

방대본은 지난 2일 BA.2의 검출률을 국내감염 사례에서 10.3%, 해외유입 사례에서 18.4%로 발 표했는데 배 이상인 된 것이다.

BA.2는 흔히 '오미크론 변이'로 일컫는 세부 계통 BA.1과 비교해 전파력이 30% 높고 평균 세 대기(앞선 감염자의 증상일에서 다음 감염자의 증상일까지의 기간)도 0.5일 정도 빠르지만, 중증 도와 백신 효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BA.2 점유율은 58.1%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경기·수도권 투자**  
**10억원 이상**  
하실분.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뚝발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대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톤바름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채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 2 전원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소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희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공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가지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1,276평) 매 ㎡ 9십만원
- 4 임야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용달생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지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층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유희플러스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광연(1920~XXXXXX)  
• 피후조: 양우영(1907~11.3068 101호)  
(순창읍, 중앙리마을)  
피상속인 양 광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 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법원 2022.년3.5로 신청하여 2022년 2월 28일 양한정승인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양한 정승인 및 상속재산·유언의 범위 신고기간내에 재산신고할 하 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난 후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8일  
• 상속인: 1. 정희숙(1969-XXXXXX)  
사실 금천구 후림동 307-11, 306동 101호 (서울동, 중앙리마을)  
2. 장인숙(1921-XXXXXX)  
사실 금천구 시흥대로 74길 35, 201호 (서울동, 중앙리마을)  
3. 양광중(1977-XXXXXX)  
광주 서구 동림2리구길 50, 예오로 302호 (동천동)  
4. 장수영(1951-XXXXXX)  
광주 광산구 용원로 307-11, 306동 101호 (순창읍, 중앙리마을)  
5. 최호영(1934-XXXXXX)  
6. 최지영(1902-XXXXXX)  
7. 최지민(1974-XXXXXX)  
미성년자이므로 법원에 의한 전권 위 최호영 장수영 5.67 주소: 광주 광산구 예오로 21, 104동 1303호 (명암동, 원대리수차이파트)  
• 신고기간: 2022. 3. 8 ~ 2022. 5. 18.  
• 재판신청소: 상속인 3. 정희숙의 주소.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푸른산(“갑”)과 주식회사 초원조경건설(“을”)은 2022년 03월 04일 각각 주주총회의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의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각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주권을 각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갑” 주식회사 푸른산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4 대표이사 황성아  
“을” 주식회사 초원조경건설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304 대표이사 박학명

**산행안내**  
3월13일(일)  
▲광주대산악회 3월13일(일) 원주·소금산·간현봉·산행&출발관리전도길(트레킹) \*입주제육권 05:00, 동이병원05:05, 롯데백점05:10, 광주역05:15, 문예후문05:25, 비엔주자점05:30 \*다음카페 광주 대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